

Saath Saath 팀의 4월 보고서



Vikas : Progress라는 뜻을 가진 힌디어

인도13기 Saath Saath 팀의
뭄바이 생활
Still in "Vikas"

윤도원
Azad

이승희
Sachin

김나영
Deepa

임예현
Tara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p>(4일 안데리 이사)</p> <p>5</p> <p>주간보고서(영문) Easter Celebration</p>	<p>6</p> <p>아이들 학교 배웅 힌디 마지막(?) 수업 도비가트</p>	<p>7</p> <p>아이들 학교 배웅 코디네이터와 미팅</p>	<p>8</p> <p>아이들 학교 배웅 Unemployed Youth Program</p>	<p>9</p> <p>안데리YMCA 소개 주후 센터</p>	<p>10</p> <p>Unemployed Youth Program</p>	<p>11</p> <p>까마티푸라 뭌바이YMCA 사무총장 Simeon과 저녁식사</p>
<p>12</p> <p>주간보고서(영문)</p>	<p>13</p> <p>도비가트로 예정되어있 었으나... !!!</p>	<p>14</p> <p>홈</p>	<p>15</p> <p>스 테 이</p>	<p>16</p> <p>& 주후 센터</p>	<p>17</p> <p>Unemployed Youth Program 주후 센터</p>	<p>18</p> <p>까마티푸라 콜라바YMCA 피아노 연 주회</p>
<p>19</p> <p>인피니트 몰 구경 미용실 방문 주간보고서(영문)</p>	<p>20</p> <p>도비가트 갔지만... !!!</p>	<p>21</p> <p>코디네이터와 미팅 도비가트 (두 남자 아띠 들의 뜻밖의 여정)</p>	<p>22</p> <p>주후 센터 CFES 소개</p>	<p>23</p> <p>힌디 수업 (안데리) 350PPM 준비</p>	<p>24</p> <p>350PPM 준비</p>	<p>25</p> <p>힌디 수업 까마티푸라 크리켓 IPL 보러 가기 준기 아띠 오신 날! (~27)</p>
<p>26</p> <p>YMCA 140주년 행사 주간보고서(영문)</p>	<p>27</p> <p>힌디 수업 도비가트</p>	<p>28</p> <p>Podar College 사전방문</p>	<p>29</p> <p>힌디 수업 350PPM 준비</p>	<p>30</p> <p>힌디 수업 350PPM 준비</p>	<p>5 일</p> <p>1</p> <p>Galilean Breakfast Podar College 350PPM 강연</p>	<p>2</p> <p>까마티푸라</p>
<p>3</p> <p>주간보고서(영문) 프록터YMCA 총장 Melvin과 저녁식사</p>						



4월 활동



Mumbai, India

힌디수업



IH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안데리로 이사를 오면서, 그 동안 진행되었던 힌디 수업은 잠시 중단되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한 사바 선생님과도 마지막 시간을 보냈었다. 원래는 마지막 수업 시간에 책거리를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수업 시간이 캠프와 현지의 공휴일 때문에 어영부영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어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고자 했다. 수업이 진행되던 사탁 YMCA 한 켠의 조그마한 교실에서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롤링 페이퍼를 전해 드리고 선생님께서도 우리에게 짧은 편지를 써 주셨다. 또, 선생님만을 위한 우리만의 K-pop 공연을 하기도 했다.

그 동안 힌디를 배우며 특히 아이들과의 소통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 이후에도 힌디 수업이 계속 되길 바랐다. 그렇지만 이전까지 라온아띠의 힌디 클래스를 맡았던 선생님과 우리의 스케줄이 맞지 않아 새로운 선생님을 찾아야만 했고, 이 때문에 힌디 클래스는 한동안 진행되지 못했었다. 4월도 절반을 보내고 나서야 새로운 선생님과 힌디 클래스를 시작할 수 있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Saba 선생님과 기초적인 문장들과 많은 단어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힌디를 읽고 쓰는 법,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로 문장을 만드는 법들을 배우고 싶었다. 새로운 선생님께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말씀 드리고, 힌디 알파벳부터 기초적인 문법까지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다. 3월 한 달 동안 힌디라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새로운 힌디 선생님과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꺼내어 놓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새로운 선생님의 수업 이후 우리는 더듬더듬 힌디를 읽어 내려갈 수도 있고, 힌디의 문법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며 그동안 우리가 배운 문장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익힐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것들을 배워서 아이들이 방학을 마치고 보이즈홈으로 돌아왔을 때 힌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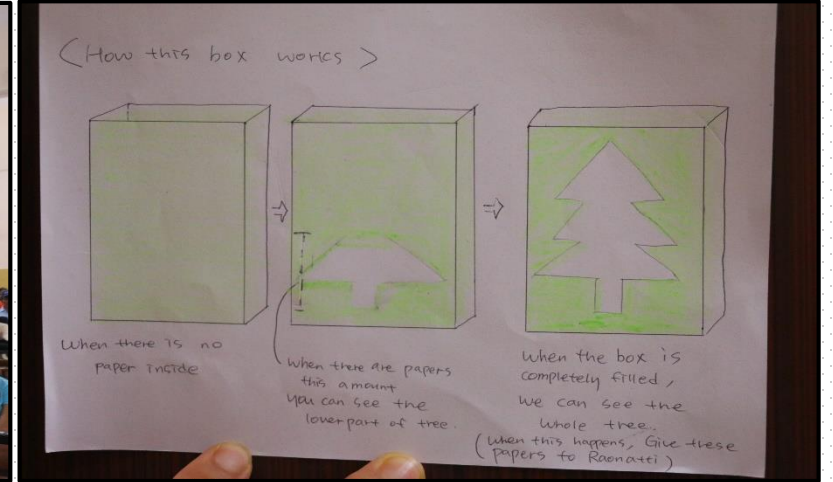
Unemployed Youth / CFES



이번 달에 우리는 처음으로 Unemployed Youth Program이라는 활동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직장을 가지지 못한, 주로 슬럼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켜줌으로써 직업을 가지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반드라YMCA에서 진행이 되었고, 사회복지사 찬드라칸트(Chandrakant)와 함께 슬럼지역을 방문하며 이러한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배경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Mumbai 내 여러 지역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과 현지 사람의 시각으로 본 그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들여볼 수 있었던 것은 참 좋았지만, 우리 라온아띠가 이 프로그램에 뭔가 가치를 더해줄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활동시간도 1시간 정도로 뭔가를 하기에는 제한적이었고, 택시를 타고 반드라까지 매번 가는데 교통비도 교통비 대로 들고, 시간도 효율적으로 잘 쓰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기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다른 프로그램에 쓴다면 좀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생각을 했다. 그만두려면 좀더 참여하고 난 후가 아닌 지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끝에, 코디네이터들과의 의논 후 이 Unemployed Youth Program을 중단하였다.

이번 달에 시작할 뻔했지만 한번도 참여하지 못하고 중단한 프로그램으로 CFES도 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보이즈홈 65명의 아이들을 넘어서, 학교에 갈 형편이 되지 못하는 남/녀 아이들을 더 선발해 YMCA에서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선발인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선발하기 전 가정방문을 하게 되는데, 라온아띠는 전 기수들이 했던 것처럼 주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가정방문에 참여해왔다. 하지만 CFES 선발 절차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위원회 사람들의 마지막 가정방문만 남아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 또한 날씨가 더운 관계로 가정 방문 날짜가 계속 뒤로 미뤄졌는데 언제 할 지도 모르는 가정방문만을 기다리는 것은 안되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 CFES도 코디네이터들과의 의논 후 중단하였다.

350PPM



국내훈련 때부터 13기는 350PPM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도에서 하게 될 Boys Home 활동이나 Kamathipura DCC, Juhu Street Children Center에서의 활동이 우선이 되고 350 활동은 하나의 캠페인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의 실천 정도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인도에 도착해 Bombay YMCA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다보니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더 350 PPM 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 이곳 Bombay YMCA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는 우리의 코디네이터로부터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활동보다도 350PPM과 관련된 활동에 더 많은 무게를 실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해들었다. 우리가 받은 스케줄에도 350PPM과 관련된 활동들이 큰 비중을 갖고 있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350PPM과 관련해서 Nilshi Camp에서 Camper와 Volunteers들을 대상으로 350PPM강의와 재생노트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고 Juhu Street Children's center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재활용 화분 만들기 활동을, R.A. Podar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에서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350PPM 강의 등을 진행했었다. 또한 350PPM 과 관련된 이슈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버전의 포스터를 만들고, 각각 에어컨, 스위치, 수도꼭지 옆에 붙일 절약 스티커도 만들었다. 재생용지를 모아 활용하기 위한 재생용지 수거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구체화 하기도 했다. 특히 캠프나 College에서의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350PPM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다. 우리 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기도 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도 350PPM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기도 했다. 강의 이후에도 350PPM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 단발성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에서의 후속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11기 인도팀이 350PPM활동을 하면서 만들어 둔 페이스북의 페이지가 있어서 이것을 이어 받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후로도 Mumbai 전역의 YMCA 브랜치를 돌며 진행되는 Day Camp와 두 번의 날시 캠프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350PPM과 관련된 활동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는 6월에 있을 350 PPM의 메인 캠페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Mumbai라는 대도시의 특성을 살린 플래시몹 캠페인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나누었고, 또 상당히 구체적인 정도까지 계획했다. 하지만 플래시몹과 같은 익명의 다수를 향한 활동은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와, 캠페인 이후 Bombay YMCA와의 Connection이 생겨나지 못해 후속 활동이 어려워 질 것 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진행하고자 했던 캠페인에 대한 계획을 우선 보류하고, 더 나은 방식을 찾기 위한 아이디어 나눔을 계속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라온아띠 네 명의 생각 뿐만 아니라 Bombay YMCA의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다.

홈
스
테
이



홈스테이 4.14~16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Kean(킨)'이라는 친구네 집에서 전 기수들에게는 없던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다. 홈스테이라고 해서 Mumbai 관광, 혹은 이것저것을 체험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들이 처음으로 간 곳은 한 슬럼가였다.

평소에 까마티푸라나 도비가트와 같은 슬럼가 근처에서 활동해서 오며가며 집들을 눈여겨보긴 했으나 직접 들어가본 적이 없어서 사실 한 평에서 두평 남짓한 천막 집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샤워는 어떻게 하는지, 물은 어디서 구하는지, 궁금하고는 했다. 이곳은 까마티푸라, 도비가트에 비해 벽이 있는 집이긴 하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판자촌들이 주로 있었다.

그러다 어떤 한 집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곳에서 우리들은 다른 때보다 행동을 더욱 조심히 했던 것 같다. 친절하진 키와 그리고 루벤 덕분에 설명을 들으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몇몇의 동네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산을 올랐다. 산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판자촌이, 그리고 산 반대편 성같이 생긴 아파트들이 즐비해있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가 사는 곳이 아닌 반대편 동네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큰 쇼핑몰에 있는 음식점(Village)에 들어갔다. 맛있는 음식 뿐만 아니라 인도 풍의 디자인, 노래, 그리고 춤과 같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했고 덕분에 신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

밥을 먹고 난 이후 우리는 뭄바이의 한 조그마한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축구경기를 보러 갔다. 사실 축구경기를 보러 간다고 해서 경기장에서 하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학교 대항전 정도 규모의 풋살 경기였고, 이곳에서 뭘 해야 할지, 어디를 응원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왜 온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 하지만 경기 전 참가 선수들과 악수도 하고 응원도 하면서 그들을 응원했다.

축구경기를 본 이후에 킨네 집으로 갔다. 이곳에는 수영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테니스 코트도 있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수영도 하고, 캐럼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 우리들은 뭄바이 시내에서 약 1시간 30분 떨어진 한 시골로 갔다. 늘 도시에서 활동하고 도시에서 놀곤 했는데, 이 곳에서 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시골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지도 알게 되었고, 소달구지 위에 올라타보기도 하고, 특별히 다라(예현)와 디파(나영)는 천으로만 가려진 변기 없는 전통 화장실을 이용해보기도 했다. 이곳에서 진짜 인도를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날, 우리들은 계획에 없던 수영을 하게 되었는데, 수영복이 없다 보니 아자드(도원)와 사친(승희)은 자신들의 티셔츠를 다라(예현)와 디파(나영)에게 빌려주었다. 그 때 디파가 아자드와 사친을 보고 '토푸'(두부) '빠닐'(치즈)이라고 놀리기도 하였다.

매일 밤마다 춤을 추기도 하고, 서로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도 해보면서 우리들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다. 한국에 놀러 온다면 꼭 대접하고 싶다.





주
이

주후 Juhu



우리들은 항상 주후에서 다른 센터와는 다르게 큰 활동이 없어도 아이들과 마냥 즐겁게 뛰어 놀기도 하고, 함께 크리켓을 치기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우리들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페트병을 이용해 화분 심기활동을 계획했다. 사실 활동 전에 디파(나영)가 주후센터 아이들은 사춘기의 소년들이라 무엇인가를 만들고, 꾸미는 데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아이들은 예상외로 이 활동을 몹시 즐거워했다.

우리들은 주후 센터가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화단을 바다, 그리고 화분 모양을 바다에 사는 물고기로 정했다. 하지만 주후 아이들은 우리들이 미리 계획한 컨셉에 국한되지 않고 물고기가 아닌 고래, 문어, 헬리콥터와 같은 모양으로 화분을 만들었다. 아이들의 창의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활동이 끝나고 우리는 Tulsi가 잘 자라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아이들과 함께 찾기로 했다. 장소 선정에는 햇빛의 양과 아이들이 노는데 화분이 방해되지 않는지, 보기에 좋은지 최대한 고려한 후 함께 결정했다. 그러나 몇몇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고집하는 장소에 Tulsi를 두기도 했다. 예를 들자면 그늘에 둔다던지, 아무 공간에 놓는다던지, 심지어는 화분을 땅에 심기도 하였는데 우리들은 크게 이 것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강제적으로 옮기지 않았다. 아마 그 아이들의 Tulsi는 잘 자라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마저도 그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활동을 하면서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우리는 화분을 만들 때 아이들에게 여러 가치 (생명의 소중함, 생명을 기르면서 얻는 즐거움, 재활용의 재발견)를 알려주고 싶었는데 다음 일정이 있어 제 시간 안에 해야 하다 보니, 이러한 가치들을 설명하기 보다는 화분 만들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다.

도비가트



도비가트 Dhobi Ghat

문이 잠겨 있다니...!!



안데리로 이사를 와서도 우리들의 도비가트 센터 방문은 계속 되었다. 이전과 비교해 가야 할 거리는 멀어지고 시간도 3배 이상 소요되어서 도비가트 센터에 가는 것이 처음에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이내 곧 익숙해졌다.

캠프가 끝나고 다시 찾아간 도비가트 센터에서 우리는 처음 그곳에 갔었던 때 느꼈던 어색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새롭게 온 아이들도 많았지만, 이전에 오던 아이들 중 오지 않는 아이들도 많았고, 한동안 못 만나서 그랬는지 아이들과 우리 사이에 조그마한 벽이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달에는 예상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 조금 힘들었던 것 같다. 센터 선생님이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하셔서 문이 닫혀 있었던 적도 있었고, 열차에서의 해프닝으로 도비가트 센터에 가기가 애매해 진 적도 있었고, 디파(나영)가 많이 아파서 4명이 다 못 가고 남자 아띠 둘이서 '뜻밖의 여정'을 할 때도 있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것은, 거리 가장자리에 자리잡고 있던 아이들의 집이 기둥만 남긴 채 모두 철거되고 있었던 것이다. 거리 공사가 시작되어서인지, 반드라의 슬럼가처럼 정기적으로 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날 이후로 이전에 오던 아이들이 수업에 출석하지도 않고 거리에서도 보이지 않아 우리를 걱정하게 하였다. 정확한 이유와 아이들의 사정을 듣고 싶었지만, 우리와 함께 도비가트에 가던 사회복지사 프라카시가 캠프 일로 바빠 연락이 되지 않고, 다른 YMCA 관계자들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여전히 우리는 아이들을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다.



활동으로는 이전처럼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신체 명칭들을 영어로 가르쳤는데, 힌디 수업 때 명칭들을 힌디어로 배워서인지 가르칠 때 힌디로 한번 더 말해주니 아이들이 덜 혼란스러워했다. 신체에 관련된 영어 노래도 동작과 함께 알려주었는데, 그래서인지 수업에 좀더 흥미를 보였던 것 같다.

또한 간단하게 영어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도록 표현들을 알려주었고, 이와 더불어 자신의 얼굴 그리기를 동시에 진행했다. 아이들이 그림을 많이 그려보지 않았는지, 얼굴 그리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다. 그릴 줄 모른다고 센터 선생님과 우리들에게 계속 그려달라고 말했다. 그려주면 활동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려보라고 계속 설득했다. 얼굴을 그린 후 색칠을 했는데, 한 아이가 얼굴을 형광색으로 색칠하니 다른 몇몇 아이들이 틀렸다고 그 아이를 놀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얼굴색처럼 뭔가 답이 정해져 있는 활동을 하게 될 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있음을 느꼈다.

까마티푸라



까마티푸라 Kamathipura



IH에서 안데리로 옮겨오면서 까마티푸라 활동은 일주일에 한 번, 긴 시간 동안 활동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날짜가 토요일로 옮겨지면, 발와디 친구들과는 더 이상 만나게 될 수 없었고 데이케어센터 친구들과만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스케줄이 이렇게 변경된다는 사실을 안데리 이동 전에 공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와디 친구들과 작별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없어 아쉬워하는 팀원들도 있었다. 이동 후 처음에는, 센터에 있는 장난감이나 교구들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것은 굳이 라온아띠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 목적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어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의 테마 혹은 목표를 정해서 그에 맞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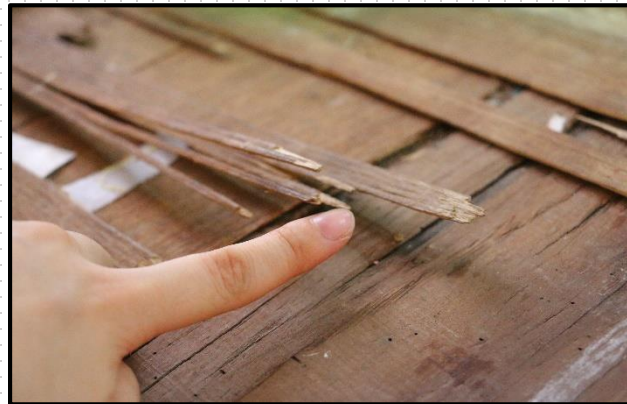
까마티푸라의 이번 목표는 건강한 마음 만들기였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편지쓰기,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 쓰기, 식물 키우기, 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다른 일정들과 까마티푸라에서 진행되는 summer camp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편지쓰기, 모자이크 활동을 통해 마음 나타내기, 이 두 가지 활동만 함께 할 수 있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편지 쓰기는 편지를 쓰면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한 번 더 떠올리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아이들과 편지지와 편지봉투를 함께 만들면서 평소에 잘 하지 못하는 미술 활동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했던 프로그램이다. 결과적으로 어린 친구들은 그림 그리기 활동 정도로만 해낼 수 있었고, 조금 큰 친구들만 편지쓰기를 할 수 있었다. 어린 친구들은 큰 친구들처럼 글로 자신들의 마음까지 담아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할 수 있었고,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이 즐거워했기 때문에 팀원 모두 그 자체로도 좋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아이들 중 몇 명은 우리들에게 편지를 써주어 우리 집 벽 한 쪽이 예쁘게 채워져 있다. 모자이크 활동은 조금 큰 아이들은 글씨까지, 어린 친구들은 하트모양 정도로만 만들어 신문지로 찢어 채우는 활동을 했는데, 이 역시 즐거운 활동이었지만, 저번 활동보다는 참여나 집중도가 낮아 약간 아쉬워하는 팀원들도 있었다.

우리는 까마티푸라 데이케어 센터 아이들이 주변 환경으로 인해 야외 활동도 하지 못하고, 한번 도 까마티푸라 밖으로 나가 소풍이나 체험학습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과 다 같이 소풍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했다. 데이 케어 센터를 담당하시는 칸찬 선생님께서도 아이들을 다양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하셔서 현재는 선생님과 함께 장소와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소나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 신중하게 임하고 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저번 월간 보고서에서도 썼듯이 우리를 외부인의 시선으로 까마티푸라 센터 안의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제안서를 제출했었는데, 첫 번째는 까마티푸라 센터 안의 위험한 의자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발와디 아이들의 물 문제였다. 까마티푸라 센터 입구 쪽 신발장 옆에 아이들이 자주 올라가 노는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의자가 너무 오래 되어 가운데가 푹 꺼져있고, 못 여러 개가 튀어나와 있어 아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졌다. 우리가 고쳐보려고도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있어 고치는 것이 쉽지 않아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안에서는 혹시 그 의자가 아이들이 올라가 노는 것 외에 다른 활동 시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새로운 의자로 대체하거나 필요치 않다면 없애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아이들이 그것을 단순히 앉는 용도 외에 올라가서 노는 놀이기구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을만한 안전한 놀이기구를 놓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것은 우리끼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 함께 결정하고 싶어 모든 의견들을 적어 제안서를 제출했다.

두 번째는 발와디 아이들의 물 문제인데, 발와디 아이들은 먹을 물을 본인들의 물통에 담아와야 마실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찰한 결과 물통 자체를 가지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물을 그때 그때 채워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발와디 아이들은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물을 제때 제때 마시는 것이 안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실 물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 우리 눈에는 문제로 느껴졌다. 아이가 한참을 울어 당황하였는데 알고 보니 목이 말라 울고 있던 것인 적도 있어 무언가 해결이 필요해 보였다. 그런데 해결책을 생각하다 보니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크고 몇 가지 부작용들도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코디네이터와 담당자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 또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적어 제안서를 보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것은, 우리는 피드백을 받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제안서를 보냈던 것인데, 코디네이터는 아무런 피드백 없이 담당자에게 전달만 했고, 담당자로부터는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자는 씬머캠프 이후로 다른 곳으로 옮겨져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제안서로 인해 옮겨진 것인지, 단순히 장소를 위해 옮긴 것인지 알 수 없고, 물 문제는 아직까지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느껴진다.





4월 생활

Mumbai, India

A group of four young people (two men and two women) are sitting on a basketball court at dusk. They are all wearing dark clothing and are posing for a photo. The man on the far left is sitting cross-legged, looking towards the camera. The woman next to him is also sitting cross-legged, holding a small black object in her hand and making a peace sign. The man next to her is sitting on the ground, making a peace sign with both hands. The woman on the far right is sitting on a floral patterned bag, resting her chin on her hands. In the background, there is a basketball hoop and a building with palm trees. The sky is a mix of purple and blue, indicating sunset or dusk.

여기는 바로 안데리!!

HOME SWEET HOME

이 곳은 4월부터 8월초까지 뭍바이 'Saath Saath'팀이 묵을 Andheri YMCA이다.

아이들과 우리들이 밥을 먹는 곳이다.
물론, 밥은 손으로 먹는다

House Parents



프란시스

얼마전 약혼식을 치른 이후로
요상한 소리를 자주 지름
(까울-과 같은..)

도너(요리사)

절대 쳐다보지도 웃지 않았으나
최근 인사를 받아주시기 시작함

사친(승희)의 GYM 식구들이 있는 곳

복서 (남. 서열1위)

특기 : 음식 먹을 때 불쌍한 표정짓기
취미 : 사친의 GYM 식구들 물기

특이사항 : 안데리 근방 서열 1위라고 다들 소개하지만,
정작 다른 개들이오면 피해버리는 당신은 안전추구형

세마리 '개'들

(따라에게만 강아지)

특기 : 애교부리기 빠진 표정짓기
취미 : 진드기 몸에 붙여오기
특이사항 : 유일한 여성

수지 (여. 서열2위)

프린스 (남. 서열3위)

특이사항 : 존재감이 없다...



컴퓨터실도 있음
(부러움주의)



2층에는 65명의 boys들이 살고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House Parents와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공부를 한다.

힌디 수업을 하는 교실.
라온아띠 전 기수들의
손길이 닿은 도서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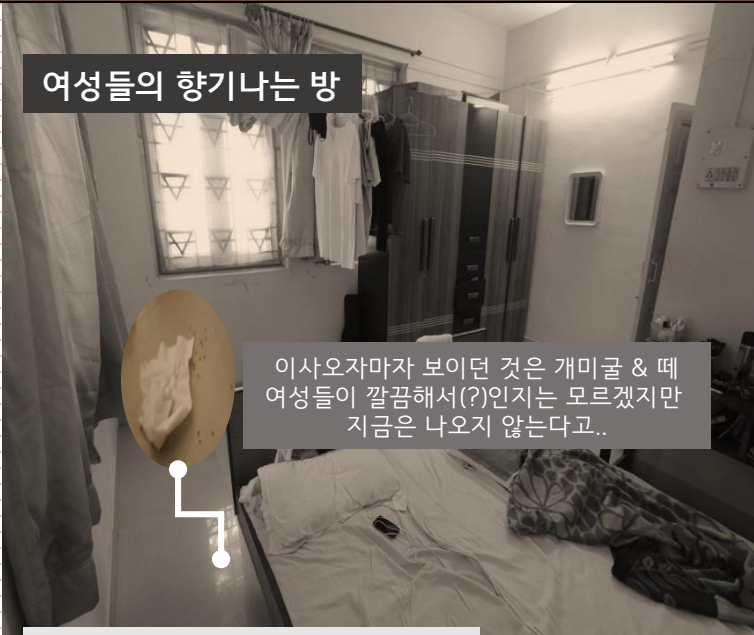
'캐럼'이라는 게임을
하는 장소
(한국의 알까기와 비슷함)



경비바이야 (경비오빠)

크리켓을 무척 좋아하셔서
가끔 밤에 우리집에 불쑥 들어오셔서
크리켓 응원도 하시곤 함
서로 맛있는 것 나눠먹고 장난도 치는
친숙하고 좋은 존재

여성들의 향기나는 방



이사오자마자 보이던 것은 개미굴 & 떼 여성들이 깔끔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오지 않는다고..

에어컨이라고 하기 민망한 에어컨



언제 세탁한지 모르는 소파에서 우리들은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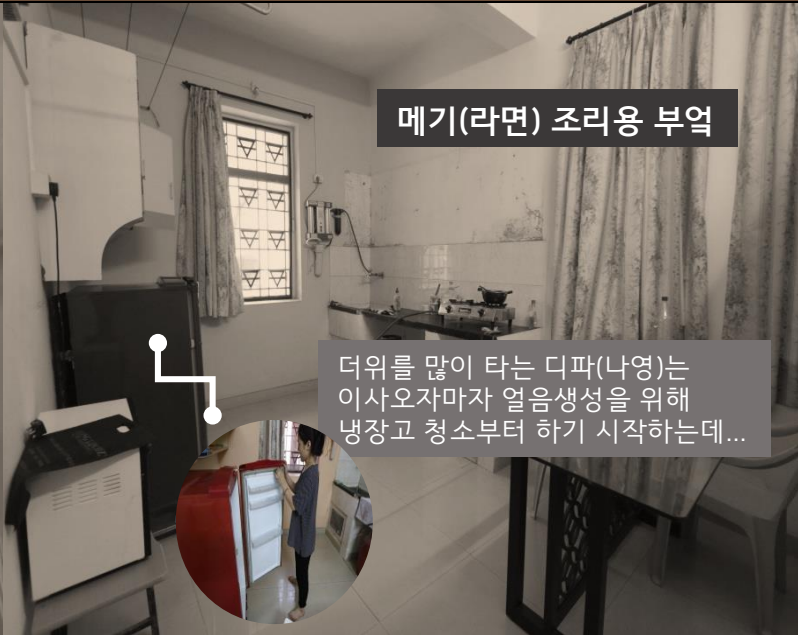
우리들의 일그러진 거실

온수가 잘나오는 멋진 화장실

낮시간엔 냉수를 틀어도 온수가 팔팔! 보일러 따로 필요없다.



메기(라면) 조리용 부엌



더위를 많이 타는 디파(나영)는 이사오자마자 얼음생성을 위해 냉장고 청소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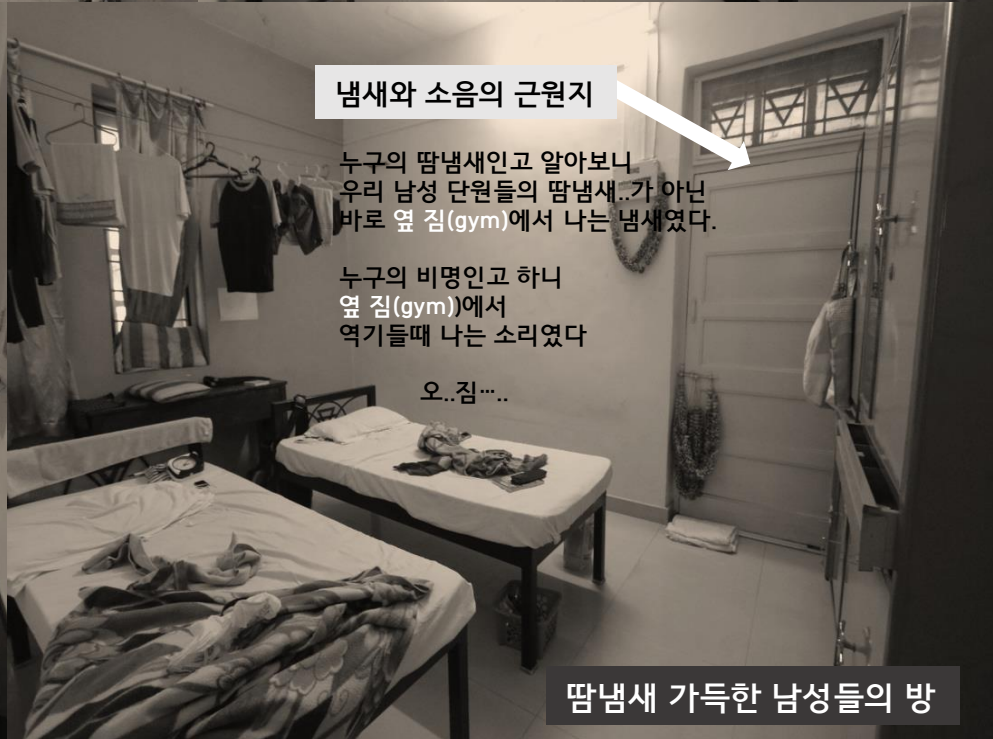


냄새와 소음의 근원지

누구의 땀냄새이고 알아보니 우리 남성 단원들의 땀냄새..가 아닌 바로 옆 집(gym)에서 나는 냄새였다.

누구의 비명이고 하니 옆 집(gym)에서 역기들때 나는 소리였다

오..짐...



땀냄새 가득한 남성들의 방

3월 한달을 쾌적한 IH(호텔과 같은곳)에서 생활하다보니 안데리 집에서 잘 살수 있을까? 하고 우려하던 것과는 달리 안데리 집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았다.

(But...6월에 우리 이사 또 가야해요 ^0^)

IH -> 안데리 & 대청소



Hi Hi Andheri



Bye Bye IH



구석구석 열심히 닦고!



걸레를 빨고!



걸레를 짜고!



바닥을 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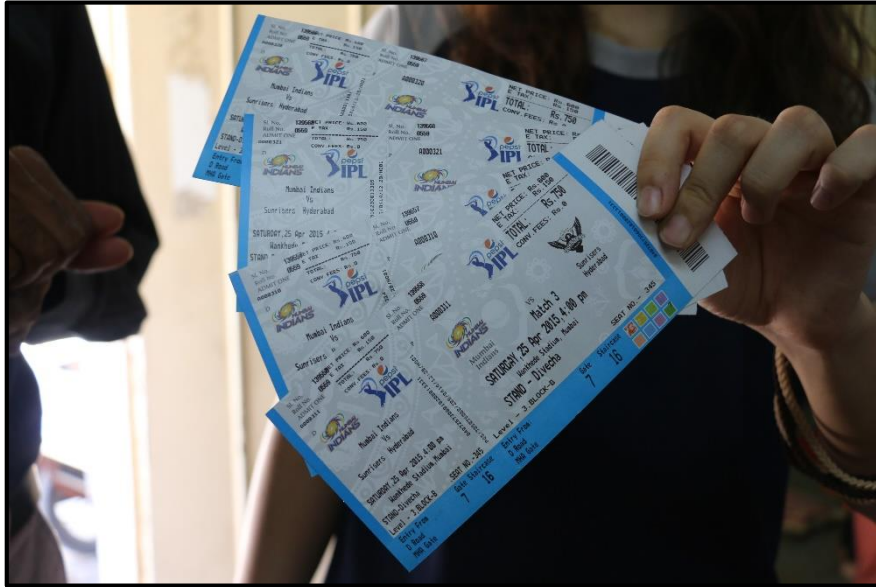
4월의 가장 큰 변화는 IH에서 Andheri YMCA 안에 있는 숙소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코디네이터인 라파엘은 우리에게 이제부터 진정한 너희들의 Harsh life가 시작 될 거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 안데리의 도착하자마자 대청소를 하며 Harsh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다. 숙소는 먼지 투성이에 벌레들이 나오는 바람에 정말 大 청소가 이루어졌다. 냉장고를 닦던 디파는 청소 후 거의 쓰러질뻔했다는 이야기가...! 그래도 깨끗해진 집을 보고 다들 만족해 했다는!!

보이즈홈 아이들과의 시간



안데리로 이사 후 우리를 처음 반겨준 사람들은 보이즈 홈 아이들었는데,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라 아이들과 함께 놀거나 많은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지만 함께 밥을 먹고 학교를 데려다 주면서 조금이라도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저번 기수와는 달리 아이들이 4월 초에서 6월 중순까지 집으로 돌아가 방학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 매우 아쉬웠고 그래서인지 있는 기간 동안 조금 더 함께 있으려 피곤해도 아침 6시에 일어나 함께 밥을 먹고 등교도 같이 했었다.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고, 또 아이들이 등교를 함께 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주어서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되어있는 날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 반전으로 ... 그 이후로 열흘 정도나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아이들도 있었다...! 아마 우리와 조금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하려고 시험에서 계속해서 fail을 받았나 보다.....ㅎㅎㅎㅎ

크리켓



4월 25일 저녁 우리는 인도 국민 스포츠인 크리켓 IPL 매치를 보러 다녀왔다. IPL 매치는 매년 여름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할 때 마다 함께 시작하는 프로리그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광하며 꼭 챙겨본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크리켓에 대한 인도 사람들의 열정을 알기에 우리도 IPL 매치를 보러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직접 관람할 수 있게 되어 다들 기뻐했다. 우리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뭄바이의 팀인 Mumbai Indians와 Sunrisers Hyderabad 의 경기를 보러 갔다. 우리는 Mumbai Indians를 열심히 응원했는데, 사실 이번 리그 내내 Mumbai Indians가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큰 기대는 없이 갔었다. 처음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는 크리켓 경기 룰이나 점수 계산하는 방법 같은 것을 알지 못해서 전광판만 쳐다보며 무엇이 무엇인지 분석하느라 시간을 보냈지만, 금방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닫고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나게 즐길 수 있었다. 약간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응원석에 앉은 것이 아니어서 다른 좌석보다 열기가 조금 덜 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페인팅도 하고 응원곡에 맞춰 춤도 추면서 재미있게 즐겼던 것 같다. 게다가 더 즐거웠던 것은, 최 약체 팀으로 뽑히던 뭄바이 인디언이 간발의 차이긴 하지만 승리를 차지해 더 신나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아이들과도 크리켓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이해하며 할 수 있게 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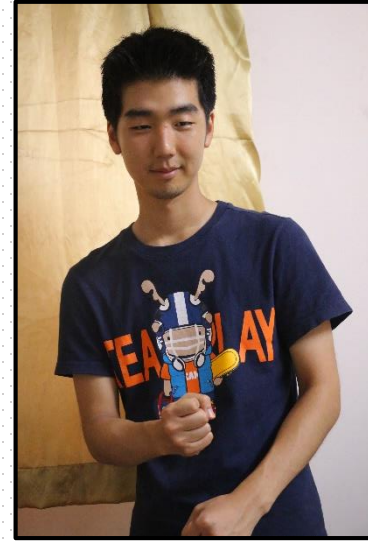
준기 아띠와의 만남



25일 저녁에 동티모르 8기였던 준기 아띠가 우리 숙소를 방문해서 2박 3일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갔다. ☺ 준기 아띠는 인도로 교환학생을 오게 되어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인도에서 보냈었고, 학기를 마치고 전국에 있는 친구들 집을 돌며 여행을 하는 중이었다. 준기 아띠는 우리보다 오랜 시간 동안 인도를 경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지 알 수 없을 만큼 재미있었고 우리가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많이 되었다. 인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준기 아띠의 라온아띠로서의 삶도 들을 수 있어서 우리에게 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흥분하게 했던 것은!! 준기 아띠의 특별한 한국 음식 파티!!! 인도에 와서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먹게 되어 다들 몹시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닭볶음탕과 닭똥집!!!!!!*.* 특히나 닭똥집을 처음으로 맛본 tara가 굉장히 맛있어하며 폭풍 흡입을 했다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신 준기아띠에게 굉장히 감사하다! 또 준기아띠가 우리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 다같이 마린드라이브에서 만나 예쁜 야경도 보고 로컬 음식점에서 처음 맛보는 인도 음식들도 먹어 정말 좋은 추억이 되었다. 시간 내어 뭍바이까지 들려준 준기아띠에게 정말 감사하다!

미용실을 가다!

Allen이 알아보지 못한
사친의 머리



알고보면
샤롯데 헤어스타일!

뭄바이에서 머문 지 한 달 반 정도 지나자 남성분들의 헤어컷 시기가 다가왔다! Sachin과 Azad는 그 전에 보이즈 홈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가면서 봐두었던 미용실로 가 머리를 잘랐고 그 결과...두둥...!! 그 동안 머리에 감춰져 있었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Azad는 미용실에 있던 멋진 바이야의 헤어스타일에 반해, 그 스타일 대로 잘라달라고 했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머리가 나오게 되었고.....Sachin은 ...아무런 주문 없이 그냥 짧게 잘라달라고 했더니.....머리를 자른 후 안데리의 Allen은 Sachin을 아예 알아보지 못했다는 소문이...

로컬 트레인에서 벌금을 먹다!

벌금 영수증!



ATM에서 돈을 뽑고 있는 다라



Saath Saath팀은 많은 뭍바이 내에 많은 사이트들을 로컬 트레인을 이용해서 이동하는데,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초반의 어느 날, 기차를 놓치지 않으려 빠르게 기차를 올라타고 보니 퍼스트 클래스에 타게 되어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다음부터 제대로 타기 위해 역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세컨드 클래스는 어디서 타냐고 정확하게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한 여성이 초록색은 세컨드, 빨간색은 퍼스트라고 알려주었고 우리는 당연하게 그것을 믿고 초록색 칸에 올라탔다. Tara와 Deepa는 여성 칸에 따로 탔었는데, 초록색 칸인데도 불구하고 퍼스트 칸이었고, 다음 역에서 표 검사 하는 분을 만나 기차에서 나와서 역에서 벌금을 내야 했었다. 우리가 외국인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진 실수라는 것을 설명했지만, 단호하게 벌금을 부과했다. 일단 남자단원들과 떨어져있게 된 것이 처음이었고, 벌금을 낼 돈도 없어 처음 가보는 역에서 ATM을 찾아 돈을 뽑았어야 했는데, Tara와 Deepa 둘 중에 한 명만 다녀오고 한 명은 역에 남아있으라고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자 단원 혼자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신분증을 맡기고 나서야 둘이 함께 갈 수 있게 되었고, 동네를 헤매며 작동중인 ATM을 찾아 벌금을 겨우 낼 수 있었다. 지금은 절대 퍼스트와 세컨드 클래스를 헛갈리지 않게 되었다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될 듯 하다.

또 벌금을 낸 같은 날, 기차역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는데, Deepa가 기차가 역으로 들어오는 예쁜 사진을 찍으려 열심히 셔터를 누르고 있는 도중에, 한 남자가 철길로 뛰어내렸다. Deepa는 사진기를 통해 그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하게 되었고, 너무 놀라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다행히도 기차가 빠르게 멈췄고, 크게 다치지 않은 채로 사람들에게 의해 구출되어 그나마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장면을 보고도 크게 놀라 하지 않는 인도 사람들의 모습, 그 상황을 겪은 기차 운전기사가 내리지 않고 10분 이내로 다시 기차를 운전해서 가는 모습 등을 보며 인도의 현실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되었고, 인도의 자살률은 얼마나 되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YMCA 행사



YMCA 140주년



Easter Celebration



Galilean Breakfast



콜라바 피아노 연주회

4월 한 달 동안 YMCA에서는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 모든 행사에 게스트로 초대 받아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가서 YMCA 사람들을 한번 더 만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지루하게 앉아있다 오거나, 피곤한 스케줄 탓에 졸다 오는 경우가 많았다. 차라리 그 시간에 휴식을 취했다라면 더 많은 에너지를 활동에 쏟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그래도 행사들을 돌아다니면서 YMCA의 분위기를 익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좋았다.

총장님들과의 식사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88년생 인형!!



우리는 뭄바이 YMCA의 총장님이신 Mr. Simeon과 Proctor YMCA의 총장님이신 Mr. Melvin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들을 가졌다. Simeon의 가족과는 안데리에서, Melvin의 가족과는 Melvin의 집으로 초대 받아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가족들도 만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 정말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지만, 이 역시 바쁜 스케줄 속에 겨우 갖게 되는 휴식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라 우리에게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우리의 코디네이터 라파엘도 매번 식사에 함께 초대 되어 유일하게 쉬는 휴일에 아주 아주 높은 상사와 함께 밥을 먹게 되어...우리 모두 동정심을 느끼기도 했다는...!! 그래도 이 역시 즐거운 추억이었다 ☺



4월 사진첩

Mumbai, India









개인 에세이

Mumbai, India



4월의 사친

인도 생활에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고
행복하지만,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요즘...
가끔씩 후회들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왜 나는 그때 그러지 못했을까?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 순간에 왜 최선을 다해 즐기지 못했을까?
더 잘할걸,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것을...

- 정현중,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中 일부

4월의 다라

무너지지 않는다. 익숙해지지 않는다. 버거울 때가 있다. 이 도시가 내게 보여주는 것들이.

이번 달에 홈스테이를 다녀왔다. 풍족했고, 여유로웠고, 편안했다. 그들과의 시간이 행복했고, 이곳에도 나의 가족이 생겼다.

14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버스를 타고 지루한 여정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주후 아이들이 버스에 올랐다. 반가웠고, 아이들이 보이는 순간 지루하게 그려졌던 하루가 즐겁게 변해가고 있음이 보였다. 아이들은 평소보다 말끔했고, 바스커는 내게 오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모든 아이들에게 새 옷과 신발을 사주고 이발을 하게 했다고 조용히 다가와 전했다.

140주년 기념행사에서 앙클과 안티를 다시 만났다. 안티와 마음을 나누던 밤이 여전히 선명했고, 나를 애정이 담긴 목소리로 부르는 그들을 다시 만나니 반가운 마음이 배가 되었다.

행사가 시작되었다. 주후의 아이들에게도 나에게도 예배시간은 지루했고, 잠을 청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었다. 우리들은 장난을 치며 그 시간들을 견뎠고, 주후 삼촌들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경고를 건넸다.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다시 안티와 우리 코디네이터의 아내를 만났다.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대화들이 오갔다.

주후 아이들도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으로 나왔다. 몇몇은 잠에서 덜 깬 것처럼 보였고, 몇몇은 지루한 시간이 끝나서인지 신나보였다. 아이들이 우르르 교회 밖으로 나오자 밖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나와 함께 있던 그들도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고, 나를 본 아이들이 나를 부르며 말을 건넸다. 평소처럼 우리는 장난을 쳤고, 나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러 자리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때 사모님이 내게 물었다. 이 아이들이 주후 스트리트 칠드런이 맞냐고. 안티도 물었다. 이 아이들이 네가 함께 일하고 있는 아이들이 맞냐고. 아이들은 바로 내 옆에 있었다.

머리가 하얘졌다. 아이들이 스트리트 칠드런이라는 생각은 오래 전에 아이들을 처음 만날 때 한 번, 그리곤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느낌조차 받은 적 없었고, 아이들이 이들이 내게 건넨 말들을 들었을까 걱정이 되어 초초해졌다. 하얘졌던 머리가 순식간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다시 복잡해졌다. 아이들은 좀 전과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 나를 상상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질문을 못 알아들은 척, 아이들을 메라 베스트 도스트(친구)라며 웃으며 소개했고, 그 자리를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한 아이가 내게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던 반드라의 슬럼가 쪽을 가리키며 자신의 집이 저 곳에 있다며 이야기해주었다. 아이는 당연하게 밝은 표정과 목소리로 이야기해주었다.



4월의 다라

나는 그 순간 안티의 집이 떠올랐다. 부엌일을 해주시는 분, 집안 청소를 해주시는 분, 그리고 빨래를 해주시는 분까지 계셨던 그곳. 입이 떡 하고 벌어지던 그곳이 생각났다.

순간 그 이질감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마음 한 켠이 내내 아렸다. 내 옆에 있는 이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밝고 순수한 아이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일 년의 대부분을 보내며 그들을 그리워해야 하는지. 왜 그들은 애초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마음의 안식처로 품을 집이라는 공간을 가질 수 없었는지. 왜 이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단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잘 '수혜' 받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아마도 메꿀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아이들은 불행하지 않다. 누구나의 삶이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 또한 그럴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내가 힘든 것은, 그들의, 돈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불행해질 수 있는 수많은 장치들을 품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 돈이라는 것이 삶의 가치를, 행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곳에서 내가 자라고 살아왔다는 것, 나 또한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차를 타고 지나가면, 밖으로 수많은 풍경이 보인다. 다닥 다닥 붙어 있는 작은 천막집들 앞으로 높게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들. 그리고 그 옆 높은 빌딩들. 무섭기도 했다. 그 곳에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있을까봐. 그것마저 보게 된다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세상이 가지는 무섭고 잔인한 모습이 나를 그대로 집어 삼킬까봐.

아무리 생각해도 정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사회,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작은 종잇조각이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살아갈 곳이, 살아가야 할 곳이 그런 곳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만나는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갈 것인가.

이제 조금 길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을 지나쳐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가는 연습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삶을 상상하지 않기를, 이 사회를 생각하지 않기를, 눈을 마주치지 않기를 연습하려 했다. 나는 어쩌면 그냥 외면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외면하고 모르는 척 덮어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요즘 다시 내 마음이 일렁인다. 이제 좀 익숙해지려고 했는데, 무뎠는지 않는가보다.

이번 한 달 역시 행복했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한 달이었지만, 이것, 저것 생각하고 고민하느라 표정이 어두울 때도 있었고, 힘들어서 팀원들에게 날 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다.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든다. 항상 함께 해주는 우리 Saath Saath 팀이 좋다.

바쁘고 힘들 다음 달을 앞두고 있다. 빠르게 흐를 시간 안에서 천천히 그 순간을 온전히 살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4월의 이야기 하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던 것들 중 하나가 '개'였다. 어렸을 때는 참 강아지들이랑 잘 지냈는데, 개한테 한 번 물리고 난 이후론 개는 물론이고 고양이도 무서웠다. 매번 개, 고양이들을 보면 길이 멀더라도 다른 길로 돌아가기 일수였다. 이렇게 무서워하기 시작하다 보니 나를 두렵게 만드는 개가 싫었고, 나중에는 누군가가 개를 만지고 손을 씻지 않고 나를 만지는 것도 싫어졌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는 더욱 싫어졌다.

인도에 왔을 때, 나는 가장 먼저 길거리 여기저기에 누워있는 개들이 보였다. 마치 지뢰밭 같았다. 어떻게 해야 이 지뢰들을 밟지 않고 잘 피해갈지 생각했던 것 같다. IH에 살 때도,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가 개 인척 장난을 치면 울기도 했다.

그러던 내가 Boys home에 오면서 세 마리 개(수지, 프린스, 복서)와 함께 살게 되었다. 처음엔 힘들었다. 집안에 움직이는 지뢰가 가득 깔린 기분이었다. 다들 개들이 착하다고, 물지 않는다고 말해도 나는 믿지 않았다. 어쩌다 한번씩 복서가 크게 짖거나 사람을 물려고 하면 '저것 봐, 재 사람 문다니까?'라며 그들이 잘못 생각한 거라며 멀리 피했다.

하루는 내가 멀리서 놀던 개들을 피하려다 배수로에 걸려 넘어졌는데, 개들이 나에게 달려왔다. 넘어져서 피가 나는데 무릎이 아프기 보단 그 개들이 너무너무 무서웠다. 그 와중에 나는 이제 애네들한테 약자로 인지되었으니 나중에 나를 알아보고 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더욱 무서웠다.

그런데 공포에 휩싸여있을 때 Tara가 나에게 '언니~ 개들이 걱정 되어 가지고 언니한테 뛰어 온 거봐~' 라고 했다. 그 당시엔 그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고, 믿기는커녕 개를 무서워하는 나를 놀리는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후론 어느 순간부터 그저 개들은 내 근처에 맴돌기만 했고, 더 이상 나에게 갑자기 뛰어오거나 짖어서 나를 놀래 키지 않았다. 나를 기다려준 것 같다. 개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있기 시작했다. 나에게 아주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나를 보고 쳐다보기도 하고 슬금슬금 천천히 다가오기도 하면서 내가 놀래지 않은 선까지 노력하며 다가와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들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늘 쉽게 불타오르고, 쉽게 가라앉는 나여서, 누구보다도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나누고 이를 되돌리기 힘든 나라서 혹시나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 몇 번 다가가다 쉽게 포기하고 '재랑 나는 친구가 될 수 없어, 왜냐하면 재는 날 싫어하니까' 라고 단정지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려준 개들에게 고맙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보니 친해지는 데에도 어떤 이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이는 금방 친해진다.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를 뿐인데 이를 '싫어하는 것', '절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하고 판단하지 않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요즈음의 나는 더위타는 개들에게 물을 주기도 하고, 무언가 먹을 것을 들고 있을 때에는 개들이 정말 눈에 불을 키고 달려들어서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용기 내어 나누어주기도 한다. 그리고 얼마 전엔 수지 몸에 붙어있는 진드기를 떼어주려고도 시도해보았다.

이제 적어도 우리 집 개들은 무섭지 않다.^o^

4월의 디파



4월의 디파



4월의 이야기 들,

인도 로컬트레인을 타러 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차길을 가로지르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문이 없는 트레인이라 자칫하면 정말 떨어질 수 있을 만큼 아슬아슬하게 기차 끝에 매달려 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 이 날도 나는 어김없이 로컬 트레인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인도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싶어 기차가 들어 올 때를 찍으려고 연속으로 셔터로 찍으려는 찰나, 한 남자가 기차길로 뛰어 들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 정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한 사람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사진을, 가장 아프고 힘든 모습으로 남기게 했다는 죄책감이 들어서 눈물이 났다. 그렇게 울고 있는 와중에 내 눈에 들어온 건 멈춘 기차의 모습, 그리고 그 남자를 보며 몇몇의 사람들이 깔깔 웃었다. 화가 났다.

인도가 정말 무서워졌다. 인도에서의 만난 좋은 사람들, 그리고 즐거웠던 시간들 보다는 인도에 내가 보았던 인도가 가진 아픈부분들만 자꾸 오버랩되었다. 어디가서 누가 인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도! 좋아! 라고 마냥 이야기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다행스럽게도 기차가 급정거 한 덕분에 남자는 살 수 있었지만, 이 때의 장면, 그리고 그 감정들은 쉽게 가시질 않았다. 처음에는 이 장면을 잊어보려고 노력하고, 다른 일도 해보았지만 지금도 가만히 있으면 문득 그 장면이 떠오르곤 한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 모습을 잊으려 노력하기 보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그를 기차길로 내몰게 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자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 인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데 시간을 쓰기로 했다.

그러다 얼마 전 인도에 방문한 준기(동티모르8기) 오빠가 보여준 사진, 그리고 들려준 이야기에서 나는 또 다른 인도들을 발견했다.

듣는 내내, 보는 내내 내가 알던 인도가 맞나? 나는 이런 인도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의아할 정도로 정답고, 즐겁고, 신나고, 활기찼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못한 이유에는 이곳에 놀러 온 것이 아니니 내가 한국에 가기 전까지 무엇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그 안에 파악은 해야한다는 압박?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던 간에, 어디에서 활동 하던 간에 슬럼프, 그리고 고층빌딩, 물이 없는 것, 쓰레기가 나뒹구는 것 꼭 그런 부분들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에서도 분명 존재하는 것들이고, 그냥 이곳에는 이런것들이 조금 더 많을 뿐이다. 아주 생소한 일이 아니란 말이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한다. 그 어느 쪽에 치우쳐 보지 않고 내가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1. 3월 개인 에세이를 쓸 때, 일기를 몇 번이나 읽으며 그때의 감정들을 다시 찾아 내려고 했었다. 이번 달은 읽을 일기가 없다. 첫 한 달은 그렇게나 열심히 썼던 일기들이 이제 슬슬 미뤄지고 있다. 피곤해서, 다른 할 일들이 많아서, 그렇게 그냥 빈 칸으로 내버려 둔 날들이 많아졌다. 하루하루 크게 느껴졌던 감정들이 막상 일기가 없으니 기억도 나지 않는다. 하루하루 전부라고 믿었던 그 격한 감정들은 막상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고 잊혀지는 것 같다. **나를 한 없이 힘들게 하고, 또 한 없이 기쁘게만 하던 그 감정들도 그냥 순간의 것이었구나.** 그걸 일기를 미루다 보니 깨닫게 되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걸 항상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

#2. 안데리로 이사 오면서, 새로움에 던져졌다. 몸바이를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다고 생각 혹은 착각한 순간, 내가 살던 몸바이와는 또 다른 몸바이에 살게 되었다. 이제는 이것도 전부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든다. 안데리에서의 생활도 한 달, 이제 또 새로움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일상이 되어버렸다. 처음엔 모든 것이 처음이라 짜릿했는데, 이제는 가끔 무료하기까지 한 것 같다. 처음에는 불안함도 짜릿함으로 느껴지더니 이제는 일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뭐 하나 특별할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움을 찾아 봐야 할 것 같다.**

#3. 몸바이에서 보낸 두 달간의 삶. 나는 이전보다 인도를, 몸바이를 훨씬 더 많이 좋아하게 되었다. 우리를 보고 잘 웃어주는 사람들, 어딜가나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언제나 짱한 그 햇볕도 가끔 좋다. 그런데 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이곳을 미워하게 되기도 했다. 나를 그냥 우습게 보는 것 같은 사람들, 하루 종일 커리 뿐인 밥상, 그리고 덥고 습하고... 진 빠지게 하는 날씨. 차라리 알지 못했을 때는 좋지도 싫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젠 엄청 좋기도 하고 또 동시에 엄청 밉기도 하다. 그야말로 애증인 것 같다. **좋아진 만큼 미워졌고 미워진 만큼 좋아졌다.** 내가 여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곳을 알면 알수록 이 애증은 더 깊어질 것 같다.

#4.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여기서 이 더운 와중에, 감기에 걸렸다. 그것도 아주 독한 감기인 것 같다. 하루 종일 머리가 띵하고 콧물이 흐른다. 차라리 몸바이 도착하자마자 아팠다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것이겠거니 하겠는데, 이제 좀 익숙한데 싶으니 감기에 걸렸다. 여길 좀 안다고 자만한 나에게 주어진 별 같은 걸까 싶다. 한국에서 가져온 감기약을 스무 알짜 먹어도 낫지를 않는다. 여기 감기엔 여기의 처방을 따라야 하는 걸까, 하고 여기에서 약을 사 먹었는데도 낫지를 않는다. 현지에서는 현지의 방법을, 이라고 말하던 것도 안 통하는 경우가 있나 보다. **아무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다.** 그냥 감기랑 같이 살아야지, 마음 먹으니 그나마 좀 낫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그냥 그마저도 내버려 둬야지.

#5. 어디부터 어디까지, 얼마만큼?

4월의 아자드

